

7/15/18

설교 제목: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북 이스라엘의 종국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8 장 1-14

- (호 8: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 (호 8: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 (호 8: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 (호 8: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절관주** 왕하 15:13, 왕하 15:17, 왕하 15:25
- (호 8: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 (호 8: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 (호 8: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 (호 8: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절관주** 왕하 17:6, 렘 50:17, 롬 9:22
- (호 8: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앓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절관주** 겔 16:33
- (호 8: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 (호 8: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 (호 8: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호 8: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호 8: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북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율법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옥매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인간이 양심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줍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복의 기준은 됩니다.

율법은 넓게는 구약 전체를, 일반적으로는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좁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의식법(Ceremonial Law),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시민법(Civil Law), 그리고 도덕법(Moral Law)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되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지켜야했던 독특한 시민법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 뿐이지 속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십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일편단심 당신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다가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리 붙고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저리 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처신이 아주 지혜롭다고 자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멸망을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호 8: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라는 말은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대로 북 이스라엘은 BC 722 년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수리처럼 강력하고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호 8: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북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주를 안다고 했지 실상은 주를 버렸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호 8: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 보다는 세상에서 잘먹고 잘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북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덮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호 8: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 이스라엘의 왕들 중 초대 왕 여로보암이나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지만 다른 왕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된 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 이스라엘에는 계속된 쿠데타로 열 여덟명의 왕이 나왔으며 왕들은 거의가 암살되었습니다.

(호 8: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 유다에 위치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를 일년에 몇 번씩이나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왔습니다.

‘송아지’ 하면 우리에게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시내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시켜 송아지를 계속 만들어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배워 따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배운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호 8: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쇠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까?

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도와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호 8: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을 의지한 북 이스라엘이 광풍에 휘말릴 것이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며 설사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이방에게 그 열매를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호 8: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북 이스라엘은 이미 힘이 없어져 주변 국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 8: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을 길들이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 제멋대로인 들나귀에 비유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잘 훈련되고 다져져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해법을 찾아 강대국인 앗수르나 애굽에 공물을 보내어 보호 조약을 맺은 것을 빗댄 것입니다.

(호 8: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나 애굽 등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공물을 보냈을지라도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호 8: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다**

북 이스라엘은 율법에 입각한 경건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각 지역에 많은 제단을 만들어 형식적인 제사만을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호 8: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호 8: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이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빠진, 형식만 갖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로 간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노예의 생활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호 8: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마치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앗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BC722 년, 남 유다는 BC586 년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바로 잡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삽시다.

율법은 한 마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실되이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